



견회요 | 윤선도

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
내 몸의 해을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
그 밧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라

<제1수>

▶ [제1수] 신념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소신과 다짐

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쏨가
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
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

<제2수>

▶ [제2수] 임금을 위하는 진실된 마음과 결백의 호소

추성(秋城) 진호루(鎭胡樓) 밧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
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
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

<제3수>

▶ [제3수] 변함없이 임금을 따르는 충성심

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
㉠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
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

<제4수>

▶ [제4수] 유배지에서 느끼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

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
㉡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
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괴 불효인가 여기노라

<제5수>

- 윤선도, <견회요(遣懷謠)>

▶ [제5수] 충과 효의 동일시를 통해 인식한 연군의 의지



핵심점점

<견회요>

☑ 시구풀이

•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

- 슬프거나 즐겁거나 남들이 옳다고 하나 그르다고 하나
- 음보 기준으로 구분을 해본다면 ‘슬프나/즐거우나/옳다하나/외다하나’로 나뉘볼 수 있기에, 본 행이 4음보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.

• 내 몸의 해을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

- 내 몸에 주어진 일만(내가 해야 할 일만) 열심히 할 뿐
- 다른 연들의 내용을 고려하면 ‘내 몸의 해을 일’은 ‘나라와 임금을 위하는 일’을 가리킨다.

• 그 밧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라

- 그 이외에 다른 일들이야 마음에 들 리 있겠는가 → **마음에 들지 않겠어**
- ‘그가 가리키는 건?’ ‘내 몸의 해을 일이다. 신념에 따라 살겠다는 소신과 의지를 나타낸다.

•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쏨가

- 내가 한 일이 주책이 없는 일임을(내 분수에 맞지 않는 일임을) 나라고 해서 모르겠는가(나 역시 알고 있다)
- 작가 윤선도는 상소문을 써서 임금에게 직언을 하다가, 다른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 귀양을 갔던 사람이다. 따라서 ‘망령된 내 일’은 자신이 상소문을 올린 일을 가리킨다.

•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

- 나의 마음이 어리석은 것도 모두 님을 위했기 때문이다.
- 내가 바보같은 짓을 한 건 다름 아닌 임을 위해서이다. 사리사욕 때문은 아니라는 거다.

•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

- 그 어떤 사람들이 그 뭐라 해도(나에 대해 모함하거나 뭐라 말을 하여도) 임금께서 알아서 생각하소서.
-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‘아무’는 간신들이다. “간신들이 나에게 대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임금 스스로가 잘 생각해서 판단해 봐.” 정도. 정리하면 ‘결백에 대한 호소’가 되겠다.

• 추성(秋城) 진호루(鎭胡樓) 밧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

- 함경북도에 있는 경원성 진호루 밖을 울며 흐르는 저 시냇물아
-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우는 소리로 들리는 이유는, 시냇물을 바라보는 화자의 마음이 너무도 슬프고 서럽기 때문이다.
- ‘추성 진호루’는 화자의 소재지이다. 국경 지역의 유배지이다. ‘시내’는 의인화된 소재고, 이 의인화된 대상에게 화자는 말을 건넨다.

- **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**
 - 무엇을 하려고 밤낮으로 흐르느냐
- **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**
 - 임(임금)을 향한 나의 변함없는 뜻을 따라 그칠 줄을 모르는가.
 - 시내에 감정을 이입해서 '임을 향한 그리움'을 표현한 거다.
- **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**
 - 산이 첩첩이 이어져 있는 모습이 연상되고 긴 강이 멀리 멀리 흐르고
 - 많은 산과 긴 강이 장애물처럼 놓여 있다는 의미로, 그만큼 화자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.
 - '피는 ~하고'와 '물은 ~하고'가 대응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기에,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.
- **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**
 -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너무도 많구나(깊구나)
 - 산과 물이 가로막아 부모님을 만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. 그리고 '그린 뜻'이 그냥 많지만 한 것이 아니라 '많고 많고 하고 하고'인 까닭에, 즉 동일 시어의 반복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화자의 강한 그리움이 더욱 잘 드러나고 있다.
- **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**
 - 어디서 홀로 나는 기러기는 울며 울며 가는가.
 - '외기러기'는 감정이입의 대상이고, 동일시 대상이고, 화자의 분신이다.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애달픈 마음을 표현했다.
- **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**
 - 부모님을 그리워하게 될 줄 처음부터 알았지마는
- **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**
 - (부모를 향한 마음뿐만 아니라) 임금을 향한 마음도 하늘이 생기게 한 것이니
 -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임금을 생각하는 마음도 하늘이 생기게 한 것이라는 화자의 말을 통해, 제4수의 '어버이 그린 뜻'이 본 구절에 와서 '임금 향한 뜻'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.
- **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괴 불효인가 여기노라**
 - 임금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불효로다
 - 화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삶이란, 부모를 섬기는 마음으로 임금을 진심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알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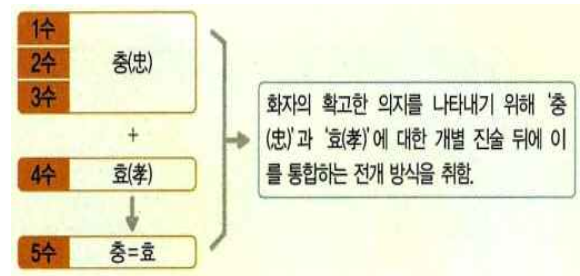
☑ 특징

- 갈래: 연시조(전5수)
- 성격: 연군적, 우국적
- 감정이입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
- 대구법, 반복법을 통해 형식적 운율과 주제적 의미를 동시에 강조함

✓ 자연물에 반영된 화자의 상황과 정서

자연물	화자의 상황	의미
시내	임금이 자신의 충성을 알아주지 않음	· '울며 예는' 시냇물: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임금에 대한 안타까움 · '주야에 흐르느' 시냇물: 임금께 계속 충성을 다하겠다는 다짐
기러기	어버이를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함	· '울고 울고 가'는 외기러기: 어버이를 그리워함 · '외기러기': 어버이를 가까이에서 모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외로움

✓ '경회'의 시상 전개방식



※ 윤선도, <견회요(遣懷謠)>

- 해제: 작가가 권신 이이첨의 횡포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가, 함경도 경원으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작품이다. 남들이 하는 말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삶의 태도, 유배지에서도 변치 않는 임금에 대한 충성심, 부모와 멀리 떨어져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 등이 잘 표현되어 있다. <제2수>의 '망령된', '어리기도' 등의 표현을 보면 화자는 자신의 신념이 스스로를 망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굽히지 않는 충성심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. 자신의 행위가 임금을 위한 충성심의 발로임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강조하고 있다. <제5수>에서 화자는 '충'이라는 가치를 '효'와 동일시하면서 연군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. 유배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버리지 않는 강직함이 잘 느껴진다.

• 주제: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, 부모를 그리워하는 마음

• 구성

[제1수] 신념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소신과 다짐

[제2수] 임금을 위한 진실된 마음과 결백의 호소

[제3수] 변함없이 임금을 따르는 충성심

[제4수] 유배지에서 느끼는 부모에 대한 그리움

[제5수] 충과 효의 동일시를 통해 인식한 연군의 의지